

## 너희는 우리의 편지, 그리스도의 편지(고후 3:1-3)

1. 고후 3:1을 보면 바울의 추천서 여부가 고린도교회 안에서 문제 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

2.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문제 제기가 옳지 않음을 이렇게 대답합니다(2절).

“너희는 우리의 편지라”(우리가 적은 편지라)

“우리 마음에 썼고”(우리의 마음들 안에 쓰여있는 [편지이며])

“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”(모든 사람에게 알려져, 읽히고 있는 [편지라])

3. 그리고 3절에서 다시 한번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확실히 밝힙니다.

“너희는...그리스도의 편지라”(그리스도께서 적은 편지라)

“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”(우리의 사역/섬김으로 생긴)

\* ‘나타난’: 디아코네오(헬, 섬기다/사역하다; 참조, ‘디아코니아’)

“하나님의 영(성령)으로 쓴 것이며...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”

### <나눔을 위한 질문>

고린도교회는 바울이 마음에 쓴 편지였고,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판에 쓰신 편지였습니다.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나요? 그리고 지금 나라는 편지를 읽는 가족, 친구, 교우, 직장 동료는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, 누구를 떠올리고 있을까요?